



P2-P4 / 교수칼럼

배덕만 연구위원의 '여전히 교회는 희망입니다'가 실려있습니다.



P5-P7 / 느헤미안 칼럼

권명재님의 '일, 삶, 섬'과 공영찬님의 '그리스도인을 알게해 준 느헤미야'가 실려있습니다.



P9-P12 / 재정보고와 기도제목

지난달 느헤미야의 살림살이 보고와 기도해주실 내용 등이 있습니다.

뉴스레터

느헤미야

2015년 6월호 (통권 3호)



+ 채플

매주 수요일 채플이 있었습니다. 먼 길 오셔서 설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학(하늘땅교회), 정준경(뜨인돌교회), 이문식(광교산울교회), 최병성(초록별생명평화연구소), 지형은(성락성결교회), 박재범(국제기아대책기구)

+ 한국교회개혁을 위한 포럼(2차)

6/15 기독교연구원느헤미야, 교회개혁실천연대, 뉴스앤조이가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연중 포럼'을 기획하였고, 그 두 번째로 '한국교회 설교,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느헤미야에서는 권영경, 배

덕만, 김형원 연구위원이, 데오스앤로고스 대표인 표성중 기자가 발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발제문은 곧 책으로 엮여 출간될 예정입니다.

+ 화룻볼 모임

매달 둘째 주 금요일 저녁에 임문, 심화반 졸업생들이 독서토론으로 모이는 화룻볼 모임이 있습니다. 5, 6월에는 <돈의 달인 호모 코뮤니타스>로 독서모임을 했습니다.

+ 신학특강 1

6/8 <아직도 십자가 대속론인가?:대속론의 의미와 한계>라는 주제로 차재승 교수(뉴브

런즈워신학교)의 신학특강이 느헤미야에서 열렸습니다.

+ 신학특강 2

6/22 <17세기 경건주의와 오늘날의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의 신학특강이 느헤미야에서 열렸습니다.

+ 전제 과정 중강

5/21 입문과정 중강을 시작으로 전과정이 종강하였습니다. 2학기 개강은 8/31일부터입니다.

교수칼럼

여전히 교회는 희망입니다

>> 배덕만 연구위원

예수를 믿는 것이 마냥 즐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기 보다 “교회에 다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우연히 나간 교회는 제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붙여가며 들려주신 성경이야기는 너무 재미있었고, 성가대의 합창은 신비로웠습니다. 친절하신 선생님들과 재미있는 친구들 덕택에, 교회는 순식간에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제 삶에서 그토록 신나고 재미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교회가 제 삶의 새로운 놀이터가 된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 교회는 제게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선배들이 중등부를 이끄는 모습은 충격과 감동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지만, 중학생들이 스스로 예배를 진행하고, 각종 회의를 개최했으며, 주보와 문집까지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던 주일학교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매월 자체적으로 철야기도회를 진행했고, 여름마다 수련회를 다녀왔으며, 가을에는 ‘문학의 밤’을 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런 고급문화를 체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새 교회는 저의 문화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성경에 대해 비판적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한없이 즐겁고 은혜

로웠던 성경이 심각한 질문과 고민의 대상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자연히, 성경공부시간에 질문하는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의 황당한 질문에 당황하셨고, 친구들은 저의 멍청한 질문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역으로, 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선생님들, 저와 공감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경멸했습니다. 성경은 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했고, 선생님들은 무능했으며, 친구들은 무지해 보였습니다. 교회를 향한 니체의 통렬한 비판이 정확하고 정직해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점점 더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꼈으며, 교회는 저의 비판 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이후, 교회는 제게 ‘비판 대상’을 넘어, ‘혐오 대상’으로 진화했습니다. 대학에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스스로 신학서적을 읽으면서, 저는 교회의 타락과 모순을 적나라하게 간파했습니다. 교회건축에 열중하던 목사님의 설교는 변영신학과 기복주의로 도배되었습니다. 전국 대학이 민주화 운동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던 80년대 후반, 전도와 성장, 그리고 교회건축에 몰두하는 모습은 비겁과 무지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에 계속 다녀야 하는 명백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만나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현재 저의 아내) 때문에, 그리고 성가대가 제공하는 음악적 즐거움 때문에 교회에 소극적으로 머물렀을 뿐입니다. 예배시간엔 잠을 잤고, 회의시

간엔 목사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 교활하고 음흉하게 교회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제게 무가치, 무의미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저의 조롱거리로 변질되었습니다.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저는 억지로 참석한 한 집회에서 극적으로 회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교회에 대한 경멸을 즐기던 냉소적 불가지론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저의 교만과 오만을 묵묵히 바라보시며 끝까지 기다리시던 주님, 저를 비판하고 심판하는 대신 저의 방종과 행패에 눈물 흘리시던 주님을 기적처럼 만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정녕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눈물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군대생활을 시작했고, 귀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말년에는 새벽마다 창고에 모여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매 시간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신의 절벽 끝에서 극적으로 주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교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변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제게 철거해야 할 ‘폐허’가 아니라, 다시 세워야 할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회복된 애정과 비전으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평신도로 경험했던 교회와 사역자로 만난 교회는 많이 달랐습니다. 교회와 목회에 대한 책임은 한층




무거웠으나, 평신도 시절에 경험한 환희와 열정은 다시 맛볼 수 없었습니다. 대형교회의 훌륭한 시스템과 뛰어난 스텝들 사이에서, 제가 할 일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설교와 성경공부만 차질 없이 수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담당할 주일학교의 양적 성장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은 제게 엄청난 열등감과 굴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강단에서 영적 변화와 각성에 대해 설교했지만, 현실적으로 더 절박하고 중요했던 것은 성령과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프로그램과 행사, 부흥과 성장이었습니다.

“ 한국교회가 최대 위기에 처한 지금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성령을 온전히 체험하고, 교회 본질을 구현 할 절호의 기회일지 모릅니다. 아무리 함량미달이 라도 교회만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

그렇게 교회는 제게 “직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0대 후반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는 제게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상가 지하의 작은 공간에서 성도, 프로그램, 그리고 재정도 없이 목회하면서, 한국교회의 현실을 온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경험하고 교과서를 통해 읽은 한국교회의 현실과 상가지하에서 몸으로 경험한 한국교회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게 쓸쓸하고 초라한 자리에서, 저는 제 자신의 실체를 극명하게 깨달았고, 동시에 하나님도 치열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고, 동시에 진정한 교회를 향한 그들의 처절한 갈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빈약한 교회에서 늘 외롭고 불안했지만, 성경적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책임과 비전은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게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없이 낙망과 좌절, 한숨과 눈물을 반복했지만, 어느덧 교회는 제 삶의 중심이요, 존재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월의 흐름과 함께, 교회는 제게 다른 존재로 변모했습니다. 사랑과 희열의 대상이었던 때가 있었지만, 증오와 비난의 대상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안정과 평안을 만끽했던 때도 있었지만, 소형교회에서 고독과 불안으로 전율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개인적 체험은 한국교회 전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사랑과 희열의 대상이었으나, 지금은 증오와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한 듯합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를 향해 성장하고, 그 안에서 번영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형교회로 해체되며, 고립과 소외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교회위기를 말하고, 묵시적 미래를 예언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최대 위기에 처한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성령을 온전히 체험하고, 교회 본질을 구현할 절호의 기회일지 모릅니다. 아무리 함량미달이라도 교회만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역량이 부족해도, 속도와 양에 흔들리지 않고, 헛된 유행과 유희에 현혹되지 않으며, 오직 주어진 자리에서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분투할 때, 그 희망은 어של픈 망상이 아니라, 자명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을 현실로 바꾸는 일, 느헤미야가 이루어야 할 역사적 사명입니다. 

느헤미안

일, 삶, 씬

>> 권명재 기독교학입문1기, 심화1기 수료



교직 16년차를 보내고 있는 요즘이다. 한 분야에 10년 넘게 종사하면서 나 나름대로는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지냈었다. 학급 경영, 각 교과목의 특성과 교과목에 맞는 교수 학습 방법, 학교라는 조직의 독특함 속에서 맺는 인간관계, 학부모 상담, 여러 유형의 아이들을 만나는 방법 등 나만의 노하우와 여유가 생겼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올해 3학년 담임을 맡게 되면서는 유난히 새로 접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았다. 학교에 처음 발령받은 기분일까? 10년을 6학년 담임교사에 익숙했던 나에게 3학년의 상황들은 모든 것이 처음이고, 모든 것이 새로웠다.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같은 초등학교 안에서 뭐 그리 대단한 차이가 있겠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에게겐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시간들이었고 아이들을 마무리로 만든 것 같아 미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다녔다. 그 동안 6학년 교사였지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었구나!

느헤미야 독서모임인 화롯불에서 읽고 나누었던 「일, 삶, 구원」이란 책이 생각났다.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는 데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직장의 죄악을 '자만', '탐욕', '음욕', '탐식', '분노', '나태', '질투', '동요', '권태' 등의 아홉 가지로 꼽으며, 일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영적인 성장을 거듭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한 책이다. 새롭게 3학년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 발달단계에도 적응하며, 교육과정 연구와 여러 연수에도 참여하면서 동학년 선생님들과도 호흡을 맞추느라 많이 분주했지만 내면의 깊은 곳에서의 나의 상태는 무료했었다. 몸과 생각은 분주했고 바쁘게 생활하고 있었지만 단

“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내 앞에 놓여진 교육이라는 일의 영원한 관점을 회복하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일과 상황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관심이 생겨났다. ”


조로움이 느껴졌고 무료했으며 무엇보다 열정, 감사가 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권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권태는 일과 삶에 마음을 다하려는 열정과 관심이 부족한 데서 시작한다. 이것은 감정의 부재로, 정서적 지루함, 수동성, 그리고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권태는 단순히 활동의 부재가 아니다. 바쁘면서 동시에 따분할 수 있다. 권태는 자극이 너무 없거나 너무 많을 때 발생한다. (p.87-89)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많은 행위들이 나 자신을 위한 방향 일수록 무료해져 갔고 감사보다는 분주함 가운데 단조로움이 쌓여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책에서는 권태에 대한 답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 일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우선순위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사람과 일과 상황에 더욱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목상하는 생활 방식을 개발하라고 한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집중하기보다 3학년 1반이라는 집합체로 아이들을 보았던 것, 수업 역시 교수학습방법을 연구하고 무언가를 많이 준비해서 수업하지만, 아이들 보다 수업하는 나 자신에 초점이 있었던 것을 돌아보게 되었다.

우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일상의 생활을 멈추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내 앞에 놓여진 교육이라는 일의 영원한 관점을 회복하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일과 상황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관심이 생겨났다. 나를 향한 관심에서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방향 전환이 되면서 무엇보다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어졌다.

지금도 나의 일상은 3월 초와 다를 바가 없지만, 일터와 삶에서의 열정과 바쁨과 관심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인지는 그 때와는 다른 것 같다. 사람과 일과 상황에 더욱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을 목상하는 것의 기쁨과 감사가 이런 건가 보다. 

느헤미안

그리스도인을 알게 해준 느헤미야

>> **공영찬** 기독교학입문3기 수료, 심화과정 재학중

불교집안에서 자란 저는 2000년 결혼과 함께 ‘교회’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년간은 그저 교회라는 곳에 따라가 시간만 때우다 오던 중 어느 날부터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 나에게 닥친 어려움 안에서 ‘감사’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신앙관에 변화를 갖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 사역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 왜 기독교를 비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출석하던 공동체 내의 문제점들을 통해 그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되었고 과연 어떤 것이 성경적인가를 찾던 중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를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에 첫 걸음을 내 댈던 날 저는 가슴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날의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싶었던 저에게 느헤미야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수고하시는 교수님들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고, 저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통해 바라보는 시각이 느헤미야에서 공부하기 이전과는 매우 달라졌습니다.

저와 같은 일반성도들은 ‘신학’의 중요성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더함

공동체’의 목사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성경을 해석해, 스스로 신학/신앙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제가 느헤미야에서 공부



“ 예수께서는 분명 더 낮은 곳에서, 더 낮은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곁에 계셨습니다. ”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목사의 성경해석을 믿고 따르는 것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가을학기 때 기독교 좌파와 우파에 대하여 발제를 준비하던 중 놀라운 설교 장면을 발견하였는데, 모 대형교회의 목사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설명하며 “그래서 우리는 좌파가 아닌 우파의 길을 가야 한다. 좌파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다.”라 하였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웃기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예수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 더 낮은 곳에서, 더 낮은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약자들 편에서야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겠지요. 최근 모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기독교인 정치인들의 기독교 세계관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들이 어떠한 교리를 갖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런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욕심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솔직히 지금의 부패하고 무너진 교회들에 비교하자면 나는 좀 낫다고 핑계는 대지만 과연 나 자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은 찾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해답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모두 하나님께 맡겼는가? 다른 누군가의 흥조차 본 적이 없는가? 삶이 힘들어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지는 않았는가? 내 앞에 나타나 도와달라는 이웃을 외면하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고 분명 그 끝에는 승리일 것이라는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느헤미야.

그 안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의 입문, 심화, 연구과정의 자격요건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의 올바른 신학을 위해서라면 문턱을 좀 더 낮추거나 기준에 맞는 과정이 추가로 편성이 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무너져 버린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후원재정동역자와 재정보고 2015년 4~5월

개인후원

강도영, 강민혁, 강병일, 강선희, 강성태, 강인성, 강현길, 강화춘, 고미혜, 고윤일, 고재광, 고재현, 공경표, 공영찬, 박병화, 구자옥, 권경옥, 권두현, 권명재, 권민영, 권민정, 권성호, 권세운, 권현아, 권현진, 기호용, 김경란, 김경모, 김규동, 김근주, 김기범, 김난희, 김대연, 김대원, 김덕, 김동훈, 김래산, 김미정, 김민석, 김민수, 김민철, 김봉래, 김사원, 김상열, 김상욱, 김석원, 김석주, 김석태, 김진, 김진호, 김성열, 김성학, 김소희, 김수정, 김신한, 김아름, 김아주, 김양현, 김연희, 김영승, 김영진A, 김영진B, 김옥경, 김요한, 김유성, 김인성, 김재신, 김정길, 김정은, 김종욱, 김종필, 김주석, 김준길, 김준수, 김준혁, 김지인, 김지현, 김진, 김진우, 김진혁, 김진열, 김철휘, 김태원, 김태윤, 김태환, 김하양, 김하영, 김한나, 김현정, 김현주, 김형규, 김희정, 나정수, 나종삼, 남백희, 남오성, 남일성, 남태일, 노혜미, 노활석, 동방호현, 무명, 문기순, 문명관, 문인정, 문형욱, 문혜진, 문효민, 민은주, 박경숙, 박국, 이, 박기용, 박민균, 박병만, 박상백, 박성민, 박성준, 박소영, 박애영, 박연주, 박영혜, 박재이, 박재훈, 박정수, 박정숙, 박종만, 박준형, 박중순, 박진일, 박진호, 박찬용, 박철용, 박현혁, 박혜원, 박혜정, 방성희, 방필연, 배명성, 배소연, 배은기, 배태욱, 배한나, 백민정, 백승훈, 백용환, 변성진, 변은혜, 서미영, 서연자, 서주희, 석은진, 성경식, 성시운, 손주환, 손주희, 송경근, 송덕무, 송아진, 송은진, 송창달, 송현미, 송효진, 신선영, 신소용, 신주현, 신지호, 신현요, 신혜성, 심재용, 안경숙, 안병열, 안세주, 안재영, 양지영, 엄태진, 여신애, 연문정, 오근애, 오세민, 오수경, 오숙현, 오주희, 오지현, 오혜경, 왕정수, 우승정, 우현미, 유가을, 유경원, 유명종, 유병욱, 유병진, 유병휘, 유솔, 유수경, 유슬기, 유명백, 유명성, 유욱, 유주환(정수원), 유태완, 유희장, 윤기석, 윤기원, 윤성운, 윤수일, 윤준택, 윤진아, 윤혁택, 윤호현, 윤희정, 이경직, 이경하, 이규범, 이규복, 이길중, 이동주, 이로운, 이명희, 이미순, 이미영, 이방욱, 이병선, 이병욱, 이병훈, 이보람, 이사방, 이상진, 이상호, 이세춘, 이수미, 이수연, 이수정, 이수진, 이순조, 이승민, 이신석, 이양철, 이연우, 이완수, 이용진, 이원근, 이윤정, 이은영, 이은재, 이일수, 이장은, 이재원, 이재은, 이정민, 이정희, 이종규, 이주, 이주연, 이지선, 이지연, 이지영, 이진숙, 이진현, 이창민, 이창선, 이태호, 이풍관, 이한일, 이항구, 이항숙, 이현장, 이형석, 이희석, 임석환, 임종화, 임혜진, 장건세, 장상순, 장은선, 장의신, 장인숙, 장재규, 장재원, 장원현, 장혜영, 장효진, 전갑수, 전계명, 전미이, 전성현, 전세훈, 전재윤, 전중환, 정국진, 정명숙, 정석구, 정선희, 정영희, 정원순, 정은주(정복순), 정이방, 정재기, 정재도, 정재훈, 정지영, 정지은, 정지훈, 정진호, 정진희, 정찬형, 정철규, 정택인, 정혁구, 정혜경, 정희진, 정희원, 조경원, 조기행, 조성모, 조성영, 조성효, 조순래, 조영민, 조원규, 조은아, 지성학, 지형은, 진실에, 차미나, 차정호, 채미혜, 채인규, 채인혜, 채혜진, 천재성, 최동국, 최미근, 최병성, 최성호, 최세진, 최소영, 최순남, 최영, 최영상, 최영희, 최요나, 최용주, 최윤호, 최은주, 최일호, 최자연, 최재훈, 최진선, 최진영, 최현복, 최혜영, 최희택, 허규하, 허상호, 하태권, 한나영, 한명석, 한명호, 한상은, 한석문, 한승환, 한유진, 한은혜, 한인희(유태호), 한지인, 한혜원, 허상영(조은연), 허성호, 허진석, 허환구, 현지은, 호욱, 홍인경, 황가영, 황선관, 황준영, 황혜정

연구위원 후원

고선숙, 권연경, 김민철, 김영문, 김진혁, 김창식, 안개업, 고경화, 이윤희, 조상우, 한부홍, 한상은, 홍희연

교회 및 단체후원

100주년기념교회, 개포동교회, 광고산울교회, 나들목교회, 산울교회, 새말교회, 서울영동교회, 열린가정교회, 예인교회, 일산은혜교회, 주님의보배교회, 주사람교회, 찾는이광명교회, 한그루교회

장학후원

무명

목적후원

이유진(사무보조후원)

특정목적후원

한빛누리 연구과정 특별후원

연구생 식사 및 간식후원

김석주, 한승환

운영성과

계정과목	4월	5월
사업수익	15,507,000	17,822,300
후원금	12,946,000	15,119,500
일반후원금	10,360,000	12,480,000
특정후원금	2,586,000	2,639,500
사업수입	2,533,000	2,702,800
수강료수입	1,950,000	1,200,000
사업수입	583,000	1,502,800
기타수입	28,000	0
기타수입	28,000	0
사업비용	18,349,222	18,768,018
사업운영비	6,605,602	8,252,038
사업인건비	4,745,000	7,000,000
사업진행비	1,370,620	856,428
사업홍보비	489,982	395,610
관리운영비	11,743,620	10,515,980
인건비	3,587,940	3,863,520
사무관리비	8,155,680	6,652,460
당기 순자산의 증(감)	-2,842,222	-945,718

재무상태

계정과목	금액
자산	
유동자산	35,651,853
당좌자산	35,651,853
비유동자산	59,813,450
투자자산	4,200,000
유형자산	35,613,450
기타비유동자산	20,000,000
자산총계	95,465,303
부채	
유동부채	0
부채총계	0
순자산	
기본금(영구제한)	1,445,000
잉여금(제한없음)	94,020,303
잉여차액	94,020,303
당기차액	34,043,907
순자산총계	95,465,303
부채와순자산총계	95,465,303



2015학년도 2학기 신입생모집

총 1년과정 한학기당 12주 수업 화·목 야간수업

화·목마다 수업시간은
1교시 : 저녁7:00-8:30
2교시 : 저녁8:40-10:10
즉, 학기당 4과목이며
1년동안 총 8과목을
수강하는 과정입니다.

각 요일별 수강신청 가능

화요일 혹은 목요일 과목만
수강이 가능하다면, 요일별
수강신청을 해주세요.
다만 수료까지
총 2년이 걸리게 됩니다.

응시자격

직장과 일상생활의 신앙적 의미를
성찰하고자 하는 성도들

전공 연구의 신학적 토대를 놓고자
하는 대학원생, 기독교적 관점으로
일하고자 하는 기독교 전문인

사역의 성경적·신학적 동력을 얻기
원하는 기독교 운동가 등

1학기 (3월~)

구약이야기 I (율법과예언) | 구약 | 김근주
예수와 하나님 나라 | 신약 | 조석민
하나님과 그의 세상 | 조직신학 | 김형원
세상속의 그리스도인 | 윤리 | 김동춘

2학기 (9월~)

구약이야기 II (역사와지혜) | 구약 | 김근주
바울과 하나님 나라 | 신약 | 권연경
하나님의 구원계획 | 조직신학 | 김형원
교회역사 이야기 | 교회사 | 배덕만

전형방식



더불어 한몸 유쾌한 세상살이

2015 8.5 wed - 8 sat
3박4일!

협력단체 광고

건양대학교 논산창의융합캠퍼스



www.biblekorea.org

등록기간

- 1차 5. 4(월) - 5. 31(금)
- 2차 6. 1(월) - 7. 20(월)

등록안내

온라인 대회 등록 biblekorea.org
 온라인 참가신청 후 선납금 50,000원을 입금하면 접수완료
 등록비 잔액은 7월 17일 (2차등록마감)까지 입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822401-04-035111 (예금주: 성서한국)

등록비

등록비 150,000원	
일반 개인	1차등록 130,000 / 2차등록 140,000
학생 개인	1차등록 120,000 / 2차등록 130,000
그룹 10명이상	1차등록 120,000 / 2차등록 130,000
서포터즈교회	150,000
자원봉사자	70,000(선착순 40명)

주최회 감사



김형국 목사 남울교회, 박득준 목사 새망교회, 배덕만 교수 대신대학교

성서한국 공동대표



김병철 목사, 박동환 목사, 손봉호 교수, 이영환 목사, 이만영 교수, 이승영 목사, 홍정일 목사

주요 프로그램

- 성경연구: 성경에서 공동체를 만나다.
 구약에서 본 공동체 김근주(기독교연구원 뉴에미아), 김구원(계신대), 차준희(한세대), 전성민(벧루바기독교세계관대학원)
 신약에서 본 공동체 권연경(송실대), 차정식(한일장신대), 이필천(이탈한요한계시록연구소), 안용성(그루터기교회)
 신앙과 공동체 백소영(이화여대), 남오성(일산은혜교회), 빅대영(광주서명교회), 이시중(IVF 학사회)

선택특강: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나다.

참여단체

개혁교회, 권의정교회, 교회2.0목회자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국제대학선교협의회(CMI),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대학인회(ESF), 기독교유희기회(CLF), 기독교연구원뉴에미아, 기독교청년아카데미, 뉴코리아, 새비시온, 생명평화연대, 성서공회, 성서대, 성서대전, 성서한국부서연대, 성서한국인턴부서연대, 열매있는교회, 인공실천시민행동, 좋은교사운동, 주가원기독교연대, 크리스찬과학기술인포럼, 평화누리, 평화한국, 하나누리, 학생선양운동(SFC), 한국기독교학생회(IVF), 한국누가교회(CMF) 사회부, 한빛누리, 현대기독교연구원, 최년함께

참예교회

개령교회, 광교산울교회, 나눔교회, 두레교회, 사랑누리교회, 산울교회, 새망교회, 새울산교회, 서울영동교회, 언덕교회, 예수마음교회, 예인교회, 일산은혜교회, 전주영린문교회, 주향교회, 빛은이광영교회, 카운트교회, 하나.의교회, 함께하는교회

대회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biblecorea@gmail.com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155-1 명남빌딩 205호 TEL 02-734-0208 FAX 02-734-0209



느헤미야 일정

7/5~7 교수퇴수회 가 전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7/10 화롯불 모임이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7/20 <창세기와 허블 망원경: '창조과학'의 성경해석을 말한다> 라는 주제로 전성민 교수(벤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의 신학특강이 진행됩니다.

8/10~14 연구과정생들을 위한 헬라이어 특강이 진행됩니다.

8/25 개강예배가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기간

7/1~15 목회학연구과정 및 기독교학연구과정 신입생모집

8/3~10 기독교학입문과정 신입생 모집

기도와 동역

1. 방학동안 우리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2.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
3. 전임교수 충원을 위한 후원자모집을 위하여
4. 한국교회와 신학교들의 갱신을 위하여
5. 동역자들의 건강과 끊임없는 교제를 위하여

편집부 알릴

느헤미야 뉴스레터는 격월로 발간됩니다. 좋은 글이나 논문 등을 보내주시면 실어드릴 것입니다. 특히 후원자와 재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보실때마다 동역의 마음으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르스와 이해하기 힘든 정세와 권력이
깨끗해지길 바라며..

뉴스레터 느헤미야

발행인 김형원

편집인 고상환

편집부 광명화 배한나

발행일 2015년 7월 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2길 5-15 구미빌딩 2층

H. www.nics.or.kr

P. 070-8260-0208

F. 02-323-0208

E. nics@nics.or.kr

후원방법

<정기후원>

www.nics.or.kr/funding에서
자동이체후원 신청

<무통장 후원>

국민 822401-04-042816
국민 093401-04-186547
(재)한빛누리(기부금영수증 발급)

연구위원 후원

신한 100-027-945530

학생 장학금 후원

국민 012501-04-251307

해외에서 후원

Swift CODE : CZNBRSE
국민 822401-04-042816